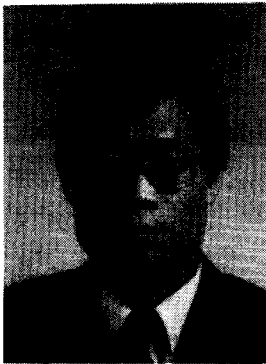


# 21세기 미래 사회와 새로운 미래기업상의 정립과제



곽 태 운

〈서울시립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I. 머리말

21세기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래사회를 진단하는 미래학자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Alvin Toffler, Lester Thurow, 등이 그 대표적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곧 다가오는 21세기는 엄청난 변화의 사회이며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이른바 제 3의 물결 또는 혁명을 겪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정보화 사회, 지력 사회(Knowledge power society), 범세계화사회(Globalization society), 초경쟁사회(Super-competition society),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은 다가오는 21세기의 이러한 사회의 특성을 요약하고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업상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 II. 21세기 미래사회의 특징

### 1. 정보화 사회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다. 즉 21세기 사회는 정보 통신네트워크가 또 하나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그에 따라 기업내부 및 기업상호간은 물론이고 인간상호간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는 컴퓨터통신, 통신네트워크(공중회선망, 위성통신망 등), 네트워크정보기기(디지털PBX, Ethernet 등), 뉴미디어(문자방송, 고선명TV 등), VAN,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결과이며 이에 따라 21세기 미래사회에서는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순식간에 습

### ■ 目 次 ■

- I. 머리말
- II. 21세기 미래사회의 특징
- III. 새로운 미래기업상의 정립과제

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지력사회<sup>1)</sup>

지력(Knowledge power)사회란 경영자, 과학기술자, 설계사, 디자이너, 정보처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과 같이 지식노동력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를 말한다. 즉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생산에 응용하는 지식노동자들에 의해 성장발전하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식(Knowledge)과 지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식은 개별 인적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하고 지력은 국민 경제전체 또는 기업이나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력화한 지적능력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개별인적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능력이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어 생산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지력화된다.

이들 지식노동자들은 종래 신체적 힘을 바탕으로 노동을 하던 이른바 근육노동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전자의 노동자들은 경영관리자, 설계자, 기획자, 정보처리자, 디자이너 등과 같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가와 근육노동자들의 중간에서 생산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결국은 미래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중추적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력사회에서는 지식노동자들이 중간층을 형성하고 종래의 물적자본이나 근육노동자들은 사회발전의 부차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앨빈토폴러(Alvin Toffler)의 지적과 같이 지력으로의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즉 지력사회가 되면 물적자본 대신 지력과 그 소유자인 지식노동자들이 지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종래의 산업자본주의는 지력자본주의로 대체된다.

## 3. 범세계화사회

21세기미래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또 하나의 공통된 견해는 범세계화(Globalization)된 사회이다. 즉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경제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이 이루어져 각국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세계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자본, 나아가 노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각국간의 이동이 자유로와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국간에 정치적 의미에서의 국경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의미에서의 국경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NAFTA), 아·태 경제협력지역(APEC) 등과 같은 경제블럭화 현상은 범세계화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초경쟁사회

21세기는 초경쟁사회(Super-competition society)가 될 것이다. 기업과 기업간의 시장경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해질 것이다. 경쟁은 국내적 경쟁에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기업은 전세계기업과 대적하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초경쟁사회는 이미 UR의 타결 및 WTO의 출범과 함께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정함에 따라 국내시장의 개방과 상호주의 및 호혜주의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21세기는 범세계화에 따른 국경없는 세계경제의 단일경제권속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이 무한경쟁 즉 초경쟁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 본 내용은 강철규저 지력사회 & 지력기업(웅진출판사 1994)을 참고하였음.

### Ⅲ. 새로운 미래기업상의 정립과제

21세기의 이러한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새로운 기업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와는 판이한 혁신적인 변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지력기업의 창출

21세기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기업은 무엇보다도 지력기업(Knowledge enterprises)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력기업이란 어떠한 기업을 말하는가?

우선지력기업은 적정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이다. 그것은 최고의 부가가치율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적정부가가치율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지칭한다. 임금의 상승 등 경쟁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생산성향상 등으로 그것을 커버하여 적정부가가치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미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지력기업은 기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변화하는 변화형 기업 또는 유연성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합병 또는 인수를 단행하거나, 해외로의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등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변신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미·일 등 선진국에서 일고 있는 기업의 M & A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력기업의 핵심은 정보의 축적과 지력인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즉 지력기업은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형기업이어야 한

다. 그것은 공장의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의 공장형기업과 성격을 달리한다. 정보형기업은 유통, 서비스, 설계, 디자인, 컨설팅 등 지력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이다. 이러한 정보형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데이터서비스, 프로세스 처리 등 첨단통신망을 구축하고 또한 정보를 수집, 분석, 기획 및 가공처리하고 축적하는 정보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 2. 범세계화기업

21세기 미래기업은 범세계화된 기업(Globalized enterprises)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모습이다. 범세계화기업은 단순히 기업의 국제화 차원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파고 들고 특히 현지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흡수하여 때로는 현지기업과의 합병 또는 인수를 단행하는 국제적융합체(Global integration)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종합마케팅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범세계화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국내적으로 개발, 발굴하는 한편 현지인과의 국제적 융화를 잘 이룩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 3. 기술혁신기업

미래기업은 기술혁신에 성공해야 한다. 첨단과학의 발달로 오늘날의 기술진보는 가히 그 속도와 심도 및 범위에 있어서 눈부시다. 이러한 초스피드의 기술개발과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21세기 미래사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1세기 미래사회의 선도적 과학기술은 물질재, 정보전자, 생명과학, 소프트과학, 우주항공,

에너지, 지구 및 해양 등에 관련된 연구개발로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선도적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 산업의 재편성을 가져올 것이며 미래 기업은 산업재편성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장기적인 사업비전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사업을 철저하게 분석진단하고 또한 기술의 생성발전 및 쇠퇴에 관한 수명주기를 파악하여 동태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세계화된 새로운 사회에서는 국내기술진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선진국 또는 사업기반을 가진 현지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나아가 공동개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현지기술개발센터, 현지제품개발센터, 현지기술개발센터, 글로벌기술개발센터, 국제적 R&D네트워크 등의 설립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기술개발센터란 현지의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지역 기술개발센터간의 정보의 교환 및 조정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센터를 말하며 국제적 R&D네트워크란 R&D에 관한 국제적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국제적 기술정보의 교환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기술혁신의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술인재를 성공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기술인재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i) 시장실태에 대한 통찰력
- ii) 생산혁신에 대한 통찰력

- iii) 상품혁신에 대한 통찰력
- iv) 사업전략수립에 대한 통찰력
- v) 기초적 과학 이론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자질
- vi) 다양한 기술인재에 대한 관리능력 등이다.(이상 21세기 기업이 살아남는 길 p.208:아마노우치 태로우 원저 조성락 옮김. 매일경제신문사간 1995. 참조)

#### 4. 정보시스템 구축기업

21세기미래사회는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최첨단 정보화사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21세기 미래기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성공의 열쇠가 달려 있다.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처리, 가공(데이터가공)기능, 정보의 교환, 전달기능(데이터교환기능) 및 정보의 기억, 축적기능(데이터기억기능)을 포괄하는데 미래기업은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생산관리, 공장자동화 및 가변생산공정, 판매, 재고관리, 유통, 연구개발, 인사재무관리 등 종래의 독립적 경영기능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정보시스템(Strteg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경영의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및 하부관리자 각각의 차원에서 전략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경영혁신 및 효율성제고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는 생활의 꽃, 절약은 행복의 꽃